

부처님의 가르침 생생한 육성을 읽는다

초기불전연구원 '앙굿따라니까야' 3·4권 출간

<앙굿따라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그 주제의 법수(法數)가 분명한 말씀들을 숫자별로 모아 결집한 것이다.

이번 책도 이런 주제를 하나부터(A1) 열하나까지(A11) 모두 11개의 모음으로 분류해 결집했다. 특히 '제 3권'에는 다섯 모음이 수록돼 있는데 이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다섯 주제를 담은 경들을 모은 것으로 모두 271개의 경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 4권'에는 '여섯의 모음'과 '일곱의 모음'이 포함돼 있는데 각각 124개와 90개의 경들로 구성됐다. 두 권을 합치면 모두 1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앙굿따라 니까야>를 번역한 대립 스님은 "이번 책들은 1·2권이 출간한지 7개월 만에 다시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992년부터 3년 동안 빠알리어 사본 10여 개를 합친 분량인 20만 단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덕분"이라고 비결을 살짝 귀띔했다. 방대한 책의 양과 어려운 경전 내용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기우다. 대립 스님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권에 500여개에 달하는 주해를 달아놓았다. 이 주해들은 <앙굿따라 니까야 주석서>를 참조해 상좌부의 전통경해를 계승하고 있다.

<앙굿따라 니까야>는 전 6권으로 출간될 예정인데 마지막 분량인 제 5권(여덟의 모음과 아홉의 모음)과 제 6권(열의 모음과 열하나의 모음)은 올해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앙굿따라 니까야 3·4권
대립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김주일 기자

“부처의 포로가 되지 말라”

성열 스님 '자유인 입제' 펴내...불교계 현실 진단·극복의 길 안내

‘비판과 반성의 부재.’

성열 스님(서울 강남포교원장)은 “오늘날의 불교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현실을 철저히 들여다보며 비판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냉철한 비판과 자정의 의지를 담보하지 않음으로 승단은 점점 권위적으로 종단은 정치집단으로 변모해 가고 재가 역시 안일한 신행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창기 부처님 교설을 근간으로 하던 불교라는 말이 형식과 제도에 불집혀 고여 있음으로 인해 수많은 폐단이 드러나고 그를 정화하기 위해 대승불교 운동이 주장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성열 스님은 “중국의 선불교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 정신을 가장 활발하고 생생하게 살려낸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9세기 선의 황금기, 중국 선불교의 정점에 입체(臨濟)가 있다.

성열 스님은 최근 펴낸 <자유인 입제>(현암사 1만 8000원)를 통해 입제의 활발한 “깨달음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외치고 있다. 아니, 유효할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필요한 정신으로써의 입제를 드러내고 있다. 키워드는 ‘자유정신’이다. 불자들이 입으로는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을 말하지만 너무도 많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당당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기에 속세에 만 머물 뿐 진제를 향해 진일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열 스님은 입제를 통해 진제의 진일보를 안내한다. 이정표는 바로 “부처의 포로가

권위·형식 위주 불교 벗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 ‘입제의 정신’ 통해 제시해

되지 말라”는 입제의 노파심절이다. 깨침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처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 된다는 말이다. 오늘날로 치면 ‘불교’라는 집단과 권위 그리고 세속적 욕망의 덩어리에 사로잡히는 한 진리의 추구는 안 된다. 성열 스님은 “불교라는 형식이 크게 살아날수록 부처라는 진리로 통하는 본질은 죽는다”며 “조직이나 시스템이 본질을 갇

아먹는 것은 미래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 말했다. 부처님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체성의 확립과 자유 획득의 길을 버리고 부처님께 예속 되는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25년간 강남 지역에서 포교 일선을 달려 온 성열 스님은 “이제 내가 걸어 온 길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며 “이제 재가 불자들의 의식도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재가자라고 하여 깨달음에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유마경>이 상징하고 있던 재가자의 역할이 한 시대의 불교정신을 지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게 성열 스님의 입장.

“자유인 입제”는 승가와 재가, 불자와 비불자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읽어야 할 삶의 지침을 상세한 해설과 풍부한 일화들의 인용으로 꾸며져 재미를 더한다. ‘입제어록’을 해설한 책이지만 ‘입제를 중심으로 보는 불교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열 스님은 ‘한답’이라는 주제 코너를 통해 우리 시대의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승가와 재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자고 제안한



다. ‘무위진인-참사람’으로서의 입제 스님은 각자의 눈앞에 드러난 그대로의 세상을 볼 것과 ‘자신’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진리는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친 스승이기에 시대를 초월하는 사자후를 듣자는 것이다.

성열 스님은 ‘입제어록’을 새롭게 해석하고 원문을 반드시 밝혀 독자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스님이 된 참전용사...고통의 성장기

한 미국소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소년은 불과 18세의 나이에 베트남에서 죽어 가는 악몽 같은 전투를 견뎌내야 했다.

그는 전쟁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는 물론 사회 전체가 폭력과 전쟁이라는 환상에 몰두해 있음을 깨달았다.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버지는 알코올과 담배에 중독되어 신세 살이 들어가셨고, 청년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 역시 마약과 섹스와 알코올 중독자이자 노숙자로 전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도 탈출구는 있었다. 불교였다. 1994년 스님이 됐다. 이 푸른 눈의 선승은 십수년에 걸쳐 평화순례를 이끌며 삶의 해답을 얻는다. 바로 ‘정념(正念)’이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 고통과 거부하지 않고 함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치유이자 삶의 전환점이었다.



중환포기 다치지 않기를
클로드 안선 토머스 지음
황학구 옮김
정신세계사 | 8500원

김주일 기자

지명 스님의 사유 ‘수필’로 오다

청계사와 법주사 주지를 지낸 석지명 스님이 산문집 <진흙이 꽃을 피우네>를 펴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명 스님은 “세상과 나는 본래부터 진흙이고, 더러운 것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이 나올 수 있으니 추하고 악한 것을 맞더라도 억울해 할 것이 없다”고 이 책에서 강조한다. 또한 ‘일체유심조’, 즉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어디에도 성취가 없거나 모든 곳에 성취가 있는데도 마음의 번뇌를 일으켜 어떤 것에는 ‘성취’라 하고 다른 것에는 ‘실패’로 낙인찍는다는 것이다. 수필이지만 글들이 늘어지지 않고 오랜 사유에서 나오는 간결한 글맛이 애디타이저처럼 한층 더 독서력을 돋워준다. 중앙일보에 연재한 칼럼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상열씨의 사진과 함께 꾸몄다.



진흙이 꽃을 피우네
석지명 지음
해토 | 1만원

김주일 기자

중 요법 스님의 법문 모음집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회장님이 금생에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은 결과입니다. 또 회장님의 두통은 회장님이 출가하기만 해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아픈 까닭은 모두 회장님이 사할때 때 뇌물을 준 과보입니다.”

(대부호의 두통과 전생인연 중에서)



오대산 노스님의 고대음 이야기
과정 위음
각산정원규 옮김
불광출판부 | 1만원

중국 우타이산(五臺山)에 은거하며 살았던 묘법(1916~2004) 스님의 법문을 엮었다. 지난해 국내 출간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속 편으로 열불 수행한 사람들의 체험담, 인과의 도리를 이해하고 참회해 병을 고친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양무제의 스승인 지공선사의 인과법문, 양무제의 양황보 참, 티베트의 고승 쇼다지캅포 대사의 방생공덕 미묘법문 등은 글씨가 읽을 만하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연재가 이 세상에 없을 당상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다이어
4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5	문없는 문, 지름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어인드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부
8	직관	이찬 수에도	대한불교진흥원
9	지금 후회없이 사랑하라	성진	도솔
10	여백 살가지는 색채가	황인	휴먼앤북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세계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발발조절 기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조각세사 (방수원단)
풍산통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나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들깨,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등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합장